

“이익을 추구할 때는 손실의 면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전된다. 이와 반대로 손실을 입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얻어진 이익의 면도 고려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 智貴免禍 : 智의 주요 기능은 禍를 면하게 하는 데 있다. ----삼국지
- 여기서 말하는 지는 사람들로 부터 갈채를 받는 지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인 것이다.

直壯曲老 : 사리가 바르면 사기가 떨치고, 사리가 바르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진다. ----- 左傳

2. 水清無大魚 :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없다. ----- 후한서
- 가급적 관용을 베풀도록 하고 너무 엄격하게 경영, 통치하지 않는 것이 민심을 얻는다.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단속하면 못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관계, 조직관리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철칙이다.

眞金不鍍 : 진짜 황금은 도금을 하지 않는다. ----- 李紳의 詩

3. 接小吏亦以禮 : 말단 관리를 접할 때에도 예를 갖추어라----송명신 언행록

盡忠報國 :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한다. ----- 宋史

4. 大禹聖人乃惜寸陰, 衆人當惜分陰 : 성인도 촌음을 아끼었거늘 범인은 더욱 시간을 아껴야 한다. ----- 진서

滄海一粟 : 넓고 큰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속의 극히 하찮고 작은 물건을 이르는 말.

----- 蘇軾의 詩

滄 찰 창; 차다, 싸늘하다, 강 이름, 푸르다(蒼)

粟 조 속; 조, 오곡의 총칭, 벼, 찹지 아니한 곡식

5. 百萬買宅 千萬買隣 : 집을 사는 데는 백만냥이지만 이웃을 사는 데는

천만냥이 든다.

6. 寬者不爲苛急耳, 簡者不爲繁碎耳 : 寬이란 가혹한 정치를 하지 않는 것, 簡이란 번잡한 일을 피하는 것 ----- 송명신언행록

天道不容 : 하늘의 도는 공정해서 악인을 용서하지 않음 ----- 南史

7. 善善而不能用, 惡惡而不能去 : 善을 좋아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惡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않는다. ----- 관자

千里眼 :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눈 ----- 魏書

8. 明主之所導制其臣 二柄而已矣 : 明君은 신하를 조종하는 데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있다. ----- 한비자

여기서 두 개의 자루란 刑 과 德이다. 즉 信賞必罰을 말한다.

千變萬化 : 한없이 변화함, 변화가 무궁함

9. 以利合者 迫窮禍患害相棄也 :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고 만다. ----- 장자

곤경에 처했다 해서 의지할 바 못 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아주 졸렬한 처세인 것이다.

天衣無縫 : ① 하늘의 직녀가 짜 입은 옷은 솔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문(詩文)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을 이룸.

② 완전무결해 흠이 없음을 이르는 말.

縫 꿰맬 봉; 꿰매다, 깎다, 붙이다, 솔기, 꿰맨 줄

10. 衆曲不容直, 衆枉不容正 : 전부가 구부러져 있으면 바로잡을 수 없고 전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 없다.

千載一遇 : 다시 만나기 어려운 매우 좋은 기회

11.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 예기

千篇一律 : ① 여러 시문의 격조가 변화 없이 비슷비슷함.

② 사물이 모두 비슷해 변화가 없음.

12. 非知之難, 行之惟難 :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가 어렵다. ----- 서경

鐵面皮 :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

13. 坐忘 : 사람은 그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縱橫自在의 판단을 하게
된다. ----- 장자

掣肘 : 간섭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제지함 ----- 공자가어

掣 : 끌 철, 억압하다. 肘 : 팔꿈치 주,

14. 與人不求備 : 사람을 사귈 경우 상대방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라

----- 서경

蜀犬吠日 : 촉나라 개는 해를 보고 짖음, 변하여 비범한 사람의 행동은
범인들의 의심을 산다. 吠 : 짖을 폐

15. 事豫則立, 不豫則廢 : 준비를 잘한 일은 성공하고 준비가 모자라면
실패한다. ----- 중용

秋風扇 : ① 가을철의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서 쓸모없이 된 물건
의 비유.

② 이성의 사랑을 잃은 사람의 비유.

16.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 걸왕,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들
의 지지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出藍 : 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낫거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음

----- 순자

17.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 충고해서 선도해도 안 되거든 이를 중단
하라. ----- 논어

醉生夢死 : 술에 취해 자는 동안에 꾸는 꿈 속에서 살고 죽는다는 뜻으
로, 한평생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감의 비유.

-----• ~로 세월을 보내다.

醉 취할 취

18. 於不可已而已者 無所不已 : 중단해서는 안 될 처지에서 중단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하차 한다. ----- 맹자

沈魚落雁 : 물고기가 부끄러워 숨고 기러기가 얼이 빠져서 떨어진다.
즉 절세미인 ----- 장자

19. 君子有九思 : 군자가 항상 마음 써야 할 아홉 가지의 생각 --- 논어

1. 視覺 에 있어서는 明敏할 것.
2. 聽覺에 있어서는 예민할 것.
3. 표정에 있어서는 부드러울 것.
4. 태도에 있어서는 성실할 것.
5. 발언에 있어서는 충실할 것.
6. 행동에 있어서는 신중할 것.
7. 의문 나는 일이 있을 때는 탐구심을 가질 것.
8. 감정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 것.
9. 이득을 보면 義를 잊지 말 것.

破鏡 : ① 깨어진 거울.

②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아 헤어지는 일.

-----• ~에 이르다

-----• ~을 맞다.

20. 熱鬧中着一冷眼, 便省許多若心思 : 분주한 가운데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채근담

破落戶 : 방탕하여 가산을 잃은 사람, 직업이 없는 무뢰한.

21. 恃人不如子恃也 : 남을 믿고 의지함은 내 자신을 믿는 것만 못하다.

----- 한비자

破斧沈船 : 술을 깨고 배를 가라앉힘. 즉, 결사적으로 전쟁에 임한다.

22. 忍辱 : ① 욕되는 것을 참음.

-----• ~의 세월.

② (불)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일.

辱 욕되게 할 욕; 욕되게 하다, 욕보이다, 욕, 수치

23. 人之患 蔽於一曲而闇於大理 : 사물의 한 면에 사로잡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함이 병폐이다.

破竹之勢 : 대나무를 칼로 쪼개듯 무서운 기세

24. 君子有三戒

1. 혈기가 안정되지 않은 청년 시절에는 色慾을 자중할 것.
2. 혈기가 왕성해지는 장년기에는 鬪爭慾을 자중할 것.
3. 혈기가 쇠퇴해지는 노년기에는 物慾을 자중할 것.

破天荒 : ①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냄. 미증유(未曾有). 전대 미문(前代未聞).

② 파벽(破僻). 僻 : 후미질 벽, 치우치다

荒 거칠 황; 거칠다, 풀이 땅을 덮다, 거칠게 하다

25. 建功立業者, 多虛圓之士 :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 채근담

성공하는 타입 - 虛圓之士

실패하는 타입 - 집요한 사람

‘虛圓’이란 기존 사고방식이라든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에 강한 타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하여 ‘執拗’(執 잡을 집; 획; [zhí] 잡다, 지키다, 가지다,拗 꺾을 요; 꺾다, 부러뜨리다, 비뚤다, 마음이 비뚤어지다, 비틀다, 비틀어 돌리다)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완고한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명암이 엇갈리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젊었을 때는 ‘허원’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집요’가 되기 쉬운데, 그런 점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風聲鶴唳 : 풍성-학려 (風聲鶴唳) [-항녀]

겁에 질린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놀람을 가리키는 말.

26. 太上 下知有之 : 부하들이 상사가 있음만 알 뿐인 상사, 그런 상사

가 최고의 상사다.

----- 노자

風樹之嘆 :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孝行)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27. 發憤忘食, 樂而忘憂 : 발분하면 먹는 것도 잊고 즐길 때는 온갖 걱정 다 잊는다. ----- 논어

匹夫之勇 : 생각 없이 날뛰는 소인의 용기 ----- 맹자

28. 惟有道者 能備患於未形也 : 덕과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야 禍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涸轍鮒魚 : 수레바퀴 자국에 갇힌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주 곤궁한 경우를 이름. ----- 장자

涸 물 마를 학; 물이 마르다, 물이 잸다, 물을 말리다, 막다

轍 바퀴 자국 철; 바퀴 자국, 흔적, 행적

鮒 붕어 부; 붕어, 두꺼비

29. 疾風知勁草 : 세찬 바람이 불어 닥쳐야 강한 풀을 분별할 수 있다.

----- 후한서

평온하고 무사한 날에는 강한 인간, 약한 인간이 구별되지 아니한다. 곤란한 일과 역경에 처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疾 병 질; 병, 괴로움, 버릇, 성벽(性癖), 틈, 하자, 병이 나게 하는 해독, 앓다, 괴로워하다

勁 굳셀 경; 굳세다, 힘, 예리하다, 굳세고 날카롭다

偕老同穴 :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힌다는 뜻으로 부부간의 맹세를 이르는 말

30. 斷而敢行, 鬼神避之 : 단안을 내려서 감행하면 귀신도 이를 피한다

----- 사기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엇인가 큰일을 시작할 때 이처럼 意氣에 불타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 불타야 하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다.

解語之花 : 언어가 통하는 꽃, 즉 미인을 말함.

31. 順德者昌, 逆德者亡 : 덕을 따르는 자는 번창하고 덕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 ----- 한서

螢雪之功 : 고생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여 얻은 보람.

32. 歡樂極兮哀情多 : 환락이 극에 이르면 哀情이 많다.

----- 고문진보

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가장한다.

33. 窮極變, 變則通 : 궁하면 변하는 법이고 변하면 통하게 마련이다

----- 역경

畫龍點睛 :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 남을 배신하는 사람은 그 말이 버젓하지 못하다. 마음에 의심을 가진 자는 그 말이 횡설수설이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는 논지에 일관성이 없다. 신념을 가지지 못한 자는 사용하는 말이 비굴하다.”

34. 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 사람들은 모두 有用 의 用만 알 뿐 無用의 用은 모른다. ----- 장자

유용성만 추구하는 인간은 어딘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인간으로서의 스케일도 작고, 장래의 대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口蜜腹劍 :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짐을 이르는 말.

35. 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 : 小人的 학문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뱉는데 있다. ----- 순자

君子는 학문에 의해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小人은 학문에 의해 자신을 팔고 있다.

九牛一毛 ;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

36. 知彼知己 百戰百勝 :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뿐만이 아니다.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도 역시 가능한 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跼蹐 : 하늘에 대하여 몸을 구부리고 땅에 대하여 발소리를 죽이며 걷다. 즉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른다.

跼 구부릴 국; 구부리다, 몸을 오그리다, 굽다, 펴지 아니하다, 한쪽 발을 들다

蹐 살금살금 걸을 척;

살금살금 걷다

37. 敗軍之將 不可以言勇 : 전쟁에서 진 장수는 勇을 말하지 않는다.

----- 사기

敗戰之將 有口無言

國破山河在 : 비록 나라는 망해도 산과 하천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

38. 不怨天, 不尤人 :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尤 : 더욱 우, 탓할 우

群鷄一鶴 :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이름. 계군일학.

39. 無面從退有後言 : 앞에 있을 때는 복종하다가 돌아서서 뒷말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상대방에게 말하라. 말해서 안 될 말이면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捲土重來 : 한번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분발하여
쳐들어감

捲 말 권; 말다, 감아 말다, 건다, 힘쓰다, 힘써 일하는 모양, 주먹

40. 前事之不忘, 後事之師 : 앞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
으로 삼을 수 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명심하고 그것에서 배움으로
써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貴人賤己 : 군자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보다 남을 높인
다.

41. 吉人之辭寡, 躁人之辭多 : 덕 있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덕 없는 사
람은 말수가 많다.

말을 할 때에는 깊이 음미한 다음에 하고, 발언은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해야 한다. 수다를 떠는 사람에게는 백 가지 손해 있을지언정 한 가지
利多 없으니 말이다.

橘化爲枳 : 화남의 귤나무를 화북에 옮겨 심으면 탕자나무가 된다는 뜻
으로, 사람도 경우에 따라 그 기질이 변함을 이룸.

橘 귤나무 굴; 귤나무, 굴

化 될 화; 되다, 모양이 바뀌다, 고쳐지다, 따르다

爲 할 위; 하다, 만들다, 베풀다, 간주하다, 인정하다, 되다, 성취하다,
이루다, 바뀌다, 다스리다, 정치를 하다, 병을 고치다, 해설하다, 배우다
枳 탕자나무 지; 탕자나무, 호깨나무, 해치다, 땅 이름, 고을 이름

42. 遇不遇者時也 : 일이 잘되고 안 됨은 때가 있게 마련이다. --- 순자
누구에게든 인생에는 우와 불우가 늘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문제는 불우
한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이다. 그 때 유난히 비굴해진다든가 소극적이었
다가는 장래를 망친다. 공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몸을 닦고 행동
을 단정히 하며 그 때를 기다려라.”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金科玉條 :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

정.

-----• 근면과 절약을 ~로 삼다.

43. 見可而進, 知難而退 : 유리하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물러서라
金城湯池 : 수비가 아주 튼튼하고 강한 곳을 이룸

44. 天地之道, 極則反, 盈則損 : 천지의 섭리는 가득 차면 이지러진다
----- 회남자

정상에 오른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한층 더 신중한 처세를 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다. 기죽지 말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릴 일이다.

琴瑟相和 : 부부사이가 좋아서 서로 화락하다는 뜻.

琴 거문고 금;거문고

瑟 큰 거문고 슬; 큰 거문고, 많은 모양, 엄숙하다

45. 人生感意氣, 功名誰復論 : 인생이란 의기로 사는 것 공명 따위로 구애되라

인간은 각자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타산만 앞세운다면 인생길이 너무나 삭막할 것이다.

錦衣玉食 :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즉 사치스러운 생활을 뜻함.

46. 人生如白駒過隙 : 인생이란 문틈으로 백마가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麒麟兒 :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47. 德者事業之基 : 덕은 사업하는 데 있어 그 근본이 된다

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騎 말 탈 기;말을 타다, 걸터앉다, 기병(騎兵), 말 탄 군사

48. 知人者智, 自知者明 : 남을 아는 것은 智요, 자신을 아는 것은 明이

다.

樂極哀生 :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생긴다.

49. 善將者愛與威而已 :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사랑과 위엄을 고루 갖추고 있다.

樂生於憂 : 즐거움은 항상 근심에서 나온다.

50. 毋恃久安, 毋憚初難 : 지금의 평안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지 말라, 처음 당한 곤경은 피하려 하지 말라

樂而忘憂 : 쾌락에 빠져 근심을 잊는다는 뜻

51. 見小利則 大事不成 : 작은 이익에 욕심내지 마라. 큰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落花難上枝 : 한 번 진 꽃은 다시 필 수 없다. 즉, 한번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

52. 樂不可極 : 인생을 즐기되 지나치지 마라 ----- 예기
'樂은 極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즐거움도 적당해야 좋은 것이다.

亂臣賊子 :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

-----• ~를 처벌하다.*간신적자.

53. 人須磨在事上 : 배워서 얻었으면 실천하여 자신을 향상시키라

南柯一夢 ;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54. 知不知 尙矣 :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체하는 것은 훌륭한 처세이다.

尙 : 오히려 상; 오히려, 바라다, 바라건대, 높다, 높다, 숭상하다

不知知 病矣 :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는 것은 병폐이다.

男女七歲不同席 : 남녀 간에는 어려서부터 구별이 뚜렷해야 한다.

55. 夜郎自大 :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것은 병폐이다.

濫觴 : 양쯔 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도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만큼 가

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에서, 사물의 처음이나 시작을 일컬음.

-----• 우편 제도의 ~.

濫 퍼질 남{람}; 퍼지다, 넘치다, 함부로 하다

觴 잔 상; 잔, 술잔의 총칭, 잔질하다, 술잔을 남에게 돌리다

56. 用兵之道, 攻_卜爲上 : 최상의 용병술은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다.

-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복종은 시킬 수 있어도 心腹시킬 수는 없다.

南船北馬 : 항상 바쁘게 뛰어다님.

57. 爲政之惟在得人 : 정치를 하는 요체는 오로지 인재를 얻는 데에 있다.

來者可追 : 과거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의 일은 잘할 수 있다.

58. 善吏者樹德 : 훌륭한 관리는 덕을 심는 법이다

怒髮衝冠 : 노여움에 머리털이 곤두서서 관을 찌른다

59. 蝸牛角上之爭 :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勞而無功 : 힘써 일했지만 공이 없다.

60. 人者寡不死其所長 : 사람은 그 장점으로 인하여 죽음을 재촉한다

- 목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다섯 개의 송곳이 있다고 하자.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것은 제일 예리한 송곳이다. 또 다섯 자루의 칼이 있다고 하자. 제일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드는 칼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이 말라버리는 우물은 물맛이 제일 좋은 우물이며, 제일 먼저 베어지는 나무는 제일 곧고 키가 큰 나무이다.

인간도 그와 똑같다. 용기가 있는 자는 그 용기로 인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도리어 몸을 망치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목자는 그렇게 말한 다음 '유능한 인물이 그 지위를 지키고자 하지만 지켜지기란 쉽지 않다'며 탄식하고 있다.

綠林 : ① 푸른 숲. ② 화적이나 도둑의 소굴을 이르는 말.(호북성에 있는 산 이름, 후한 말 왕광, 왕봉 등이 백성을 모아 이 산을 근거지로 도둑질하여 관군에 대항. '도적'의 별칭으로도 쓰임)

61. 益者三友, 損者三友 : 도움을 주는 벗이 세 그룹 있고, 손해를 끼치는 벗도 세 그룹 있다.

- 공자는 말하기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란 강직한 사람(直), 성실한 사람(諒), 교양있는 사람(多聞)이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안되는 친구란 남의 비위나 맞추며 득을 보려는 사람(便辟), 아침만 잘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善柔), 구변만 좋은 사람(便佞)

壟斷 :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 하다.

”열다섯 살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 살 때에 그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마흔 살 때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쉰 살 때는 천명을 자각하고, 예순 살 때에는 어떤 의견에도 순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일흔 살이 되자 욕망대로 행동해도 인간의 규범을 일탈하는 일 없이 자재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 ----- 공자

62.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 서른 살에 나름대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마흔 살에 확신을 가졌다.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累卵之危 : 높이 쌓아올린 달걀처럼 매우 위험하다.

63. 大道以多岐亡羊 : 큰 길은 갈래가 많기에 양을 잃어버린다

- 인생에는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셋길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홀

릉한 목표를 세웠다 해도 그런 섣길로 빠지게 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목표를 재확인,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能書不擇筆 :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64. 疑勿用, 用勿疑 :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65. 盡信書則不如無書 : 덮어놓고 책을 믿는 것은 책이 없는 것과 같다.
多言數窮 : 말이 많으면 자주 곤경에 빠진다.

66. 殷鑑不遠, 在夏后之世 : 은나라가 교훈삼아야 할 교훈은 하후의 어질지 못한 정치에 있다.
大器晚成 : 큰 인물은 오랜 세월에 이루어진다.

67. 愚者闇於成事, 智者見於未萌 :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다 되어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조 있기 전에 이미 안다.
闇 : 닫힌 문 암, 어렴풋하다, 어둡다
萌 : 싹 맹, 싹트다,
大器小用 : 큰 그릇을 작은 일에 쓴다. 즉, 큰 인물을 말단직에 앉힌다.

68. 百年俟河清 : 황하가 맑아지기를 백 년 동안 기다린다.
俟 : 기다릴 사, 기다리다, 크다, 때 지어 천천히 걷는 모양
大同小異 : 거의 같고 조금 다름. 서로 비슷비슷함.
-----• 먼젓번의 의견과 ~하다.

69. 推赤卞置人腹中 : 진심을 남의 뱃속에 옮겨놓는다.
大義滅親 : 큰 일을 위해 부모나 형제도 돌보지 않음.

70. 和爲貴 : 무엇보다도 조화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道傍苦李 :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길가에 서 있는 오얏나무. 변하

여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

71. 泰山不讓土壤，故能成其大 : 태산은 흙을 양보하지 않기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道聽塗說 :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로 길에서 이야기 한다는 뜻으로, 거리의 소문을 전하는 것

塗 : 진흙 도; 진흙, 칠하다, 길

72. 守一隅而遺萬方 : 한 군데만 지키다가 사방을 모두 잃는다

隅 : 모퉁이 우, 遺 : 끼칠 유, 잃을 유

讀書百遍義自見 : 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을 자연히 알게 된다.

73. 多算勝，小算不勝 : 승산이 많은 싸움은 이기고, 승산이 적은 싸움은 진다.

讀書三到 : 독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해독해야 한다.

74. 爭天下者 必先爭人 : 천하를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얻기를 우선한다.

獨眼龍 : 아주 사납고 용감하기로 이름난 장수

75. 諂諛我者吾賊也 :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나의 賊이다.

同功一體 : 같은 공을 세워서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

76. 人而無信，不知其可也 : 사람으로서 그 말에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同病相憐 :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吳越春秋

77. 清能有容，仁能善斷 :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동정하면서도 결단력을 가져라.

同惡相助 : 악인끼리는 악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는다.

78. 用兵之害猶豫最大 : 전쟁할 때 제일 큰 해는 우물쭈물하는 것이다
同舟相救 :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운명이나 처지가 같아지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돕게 됨의 비유.

79. 士爲知己者死 :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를 위해 화장을 한다.(女爲悅己者容)
銅臭 : 돈 냄새. 돈으로 벼슬을 산 사람을 조소하는 말

80.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 천시는 지리를 따르지 못하고 지리는 인화를 따르지 못한다.
得隴望蜀 :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농(隴)나라를 평정한 후 다시 촉(蜀)나라까지 원했다는 고사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의 비유.

81.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 빈곤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得親順親 : 부모 뜻에 들고 부모 뜻에 순종한다.

82. 大富由命, 小富由勤 :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근면이 낸다.
登龍門 : 입신과 출세를 하기 위한 어려운 관문

83. 患生于所忍, 禍起于細微 : 걱정거리는 소홀한 데서 생기고 화는 사소한 일에서 일어난다
馬脚露出 : 말 다리가 드러나다. 즉 숨기고 있던 꾀가 밖으로 드러나다.

84. 報怨以德 : 덕으로써 원한을 갚아라
馬上得之 :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얻다.

85. 滿招損, 謙受益 : 자만심은 손해를 초래하지만 겸허함은 이익을 가

저다 준다

馬耳東風 :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 흘러 버림을 이르는 말.

86. 言行君子之樞機 : 언행이야말로 군자의 중요한 면모이다.

莫逆之友 : 마음이 일치되어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친밀한 친구

87. 約法三章 : 법률은 번거롭지 않게 삼장만으로 한다

萬不失一 : 조금도 틀림이 없음.

88. 臨難毋苟免 :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어도 피하지 마라

苟 : 진실로 구; 진실로, 한때, 임시, 적어도, 구차히도

- 일반적인 곤경에 처한 경우는 피해도 좋고, 돌아가도 좋다. 그때의 정황에 맞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꼭 정면 돌파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경우예까지 피해 가려고 한다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萬事休矣 :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감’의 뜻.

89. 有欲則無剛 : 욕심이 생기게 되면 강직이 없어진다.

亡國之音 : 나라를 망칠 음악이란 뜻으로, 저속하고 잡스러운 음악을 일컫는 말. 망국지성(亡國之聲).

90.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 세상에 백락(말 감정인)이 있기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었다.

- 천리마는 백락(말 감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해주는 백락을 만나지 못하면 출세하기가 좀체 어려운 일이다.

望雲之情 : 타향에서 부모를 그리는 정. 망운지회(望雲之懷).

望 바랄 망;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멀리 내다보다, 향하여 보다, 기다리다, 우러러보다

91. 前車覆, 後車戒 : 앞 수레가 뒤집어진 것을 뒤 수레는 교훈으로 삼

아야 한다.

孟母三遷 : 맹자의 공부를 위해 세 번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92. 輕諾者必寡信 : 가볍게 승낙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적다.

明鏡止水 :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란 뜻으로, 맑고 고요한 심경을 이
름.

“관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바람과
같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모든 것이 쑥쑥 성장한다. 각박하고
마음이 찬 사람은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눈과 같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모든 것이 죽고 멸절당한다.”

93. 流水清濁在其源 : 흐르는 물의 맑고 흐리기는 그 근원에 달려 있다.

明眸皓齒 : 눈동자가 맑고 이가 희다는 뜻으로, 미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眸 눈동자 모; 눈동자, 눈, 자세히 보다

94.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 군자는 조화하나 뇌동하지 않고 소인
은 뇌동하나 서로 조화하지 않는다.

矛盾 : ①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 ~에 빠지다

-----• 체제의 ~을 드러내다

-----• 네 말은 앞뒤가 ~된다.

②〔철〕 두 판단이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없이 서로 대립하여 양립하
지 못하는 관계《유(有)와 무(無), 동(動)과 정(靜) 따위》.

附和雷同 :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함. 뇌동부
화.

95. 膠柱而鼓瑟 :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듯

目食耳視 : 실속보다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한 말이다.

96. 惟賢惟德，能服於人：오로지 어짊과 덕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木鐸：①〔불〕 나무를 둥글게 깎아 속을 파서 방울처럼 만들어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단 기구《불공과 예불(禮佛) 때, 또는 식사와 공사(公事)
 때 침》.
 ② 세상 사람을 깨우쳐 바르게 인도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의 비유.
 -----• 신문은 사회의 ~이다.
 鐸 방울 탁; 방울, 풍경(風磬), 처마 끝에 가는 작은 경쇠, 독(毒)을 바른
 창(槍)

97. 伏久者飛必高：음츠렸던 자는 반드시 높이 난다
 伏：엎드릴 복;엎드리다, 숨다, 굴복하다
 久：오랜 구; 오래다, 변하지 아니하다, 오래 기다리다
 沐猴而冠：원숭이가 갓을 쓰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조급하고 사
 납다.
 沐 머리 감을 목; 머리를 감다, 다스리다
 猴 원숭이 후; 원숭이
 冠 갓 관; 갓, 관, 뱃, 성(姓)

98. 處事不可有卜：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음모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無可無不可：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99. 善戰者 勝于易勝者也：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쉽게
 이기는 사람이다.
 無恙：몸에 벌레가 없음, 즉 몸에 병이 없다는 뜻
 恙 근심 양;근심, 걱정하다, 병(病), 진드기의 유충, 독충

100. 和其光，同其塵：재능을 감추고 세속에 동조한다.
 墨守：완고히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않는 것

101. 蓬生麻中，不扶而直：꾸불꾸불한 쑥도 곧은 삼 속에서 자라면 곧

게 자란다.

刎頸之交 :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

刎 목 벨 문; 목 베다, 자르다, 끊다, 쪼개다

頸 목 경; 목, 목덜미, 기물의 목 비슷한 부분, 목, 목덜미의 앞부분

102. 將大有爲之君，必有所不召之臣 :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임금에게는 반드시 대하기 어려운 신하가 있다.

門外漢 :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 나는 그 방면에는 ~이다.

103. 暴虎馮河，死而無悔者，吾不與也 : 경거망동하며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다.

포호빙하 (暴虎馮河) : 맨손으로 범을 때려 잡고 걸어서 황허(黃河)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용기는 있으나 무모함을 이르는 말.

暴 사나울 포; 사납다, 해치다, 해롭게 하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馮 성 풍{탈 빙}; 성, 타다, 오르다, 넘보다, 업신여기다, 말이 빨리 가다

門前成市 : 문 앞에 장이 선 것처럼 번창함

104. 既明且哲以保其身 : 이미 명철하다면 그것으로 그 몸을 보전할 수 있다.

門前雀羅 : 문 앞에 새 그물을 칠 수 있을 만큼 한적하다는 뜻

雀 참새 작; 참새, 검붉은 빛깔

羅 새그물 라{나}; 새그물, 깎, 벌다, 벌리다, 지남철

105. 問鼎之輕重 : 권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질문해 본다

彌縫 : 일의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꾸며 대어 맞춤.

-----• 과실을 ~하다.

彌 두루 미;두루, 널리, 오래다, 그치다

縫 꿰맬 봉; 꿰매다, 깎다, 붙이다, 솔기, 꿰맨 줄

106. 鞠躬盡力死而後已 : 명령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하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다.

死而後已 : 죽은 뒤에야 그만둠. 곧, 살아 있는 한 끝까지 힘씀.

已 이미 이; 이미, 말다, 그치다, 버리다, 버려두다

尾生之信 :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우직한 신의

107. 君子交絕不出惡聲 : 군자는 교제를 끊더라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未曾有 :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108. 管鮑之交 : 管仲과 鮑叔牙의 참다운 우정

盤根錯節 : 서린 뿌리와 엉켜진 마디란 뜻으로, 복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일의 비유.

盤 소반 반; 소반, 대야, 대(臺), 밑받침

錯 섞일 착; 섞이다, 어지러워지다, 등지다

節 마디 절; 마디, 대, 또는 초목의 마디, 뼈의 마디, 사물의 한 단락, 음악의 곡조, 절개, 규칙, 제도

109. 不慮胡獲, 不爲胡成 : 깊이 생각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半面識 : 서로 깊이 알지 못하는 사이

110.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오이 밭에서는 신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마라.

伴食宰相 :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

伴 짝 반; 짝, 따르다, 한가한 모양

111. 他山之石, 可以攻玉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기의 지덕(知德)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 ~으로 삼다.

跋扈 :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함부로 날뛰.

-----• 외척의 ~

-----• 탐관오리가 ~하다.

跋 : 을 밟; 밟다, 비틀거리다, 넘다, 넘어가다

扈 : 따를 호; 뒤따르다, 시종들기 위하여 뒤따르다, 넓다, 마음이 넓다, 만연하다, 창궐하다, 퍼지다

112. 三人行，必有我師焉 : 세 명이 길을 가노라면 반드시 스승될 만한
이가 있다.

傍若無人 : 옆에 사람이 없을 때처럼 제멋대로 행동함.

113. 苛政猛於虎 :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杯盤狼藉 : 술 먹고 난 자리의 어수선했음.

杯 잔 배; 잔, 그릇, 수효를 나타내는 말

盤 소반 반; 소반, 대야, 대(臺), 밑받침

狼 이리 낭{랑}; 이리, 짐승 이름, 어지러워지다, 어수선했다

藉 깔개 자; 깔개, 깔다, 그 위에 물건을 두다, 빌다, 꾸다

114. 天下多忌諱，而民彌貧 : 천하에禁忌가 많으면 백성들은 점점 더
빈곤해진다.

115. 窮亦樂，通亦樂 : 궁해도 즐기며 통해도 즐긴다

杯中蛇影 : 술잔에 비친 뱀의 그림자. 변하여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것.

116. 花看半開，酒飲微醉 :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고 술은 약간
취했을 때가 좋다.

伯樂一顧 :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제 구실을 못한다.

117. 禍福無門，唯人所招 :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다. 내가
불러들일 뿐이다.

百聞不如一見 :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118. 轉禍而爲福 :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든다.

白眉 : (중국 촉한(蜀漢)의 마량(馬良)의 다섯 형제가 다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고사에서)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의 비유.

-----• ~로 꼽다

-----• 단편 소설의 ~.

眉 눈썹 미; 눈썹, 노인, 장수하여 눈썹이 긴 사람, 가, 가장자리

119. 接人則渾是一團和氣 : 사람을 접할 때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라.

白髮三千丈 : 늙어감을 슬퍼함.

120. 君子必慎其獨也 :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에 근신한다.

白眼 : ① (생) 눈알에 있는 흰자. 백목(白目).

②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보는 눈.

↔청안(靑眼)(남을 좋은 마음으로 봄)

121. 見險而能止, 知矣哉 :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에 멈출줄 알아야 지인이다.

匹夫之勇 : 깊은 생각 없이 혈기만 믿고 함부로 부리는 소인의 용기.

匹 필 필; 필(疋), 짝, 맞서다

白衣宰相 : 흰옷 입은 사람, 즉 평민이 재상의 대우를 받는다.

122. 敖不可長, 欲不可從 : 오만 때문에 상하고 욕심 때문에 곤혹해진다.

- 무제한적인 욕망 추구는 곤란하다. 자신의 행복 추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행을 끼쳐서도 안 된다. 정도를 벗어나서는 자신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눈동자는 그 뺨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그 눈동자는 맑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눈동자는 흐려진다.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면 어찌 그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없겠는가.”

123. 君子豹變 : 군자는 갑자기 변한다

豹 표범 표; 표범

變 변할 변; 변하다, 달라지다, 변경되다, 변해가다, 움직이다, 화(化)하다, 수척해지다, 고치다, 변경하다, 바꾸다, 움직이게 하다, 이동시키다, 전변(轉變), 전화(轉化)

福生於微 : 복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싹이 튼다.

124. 以備待時, 以時興事 : 준비를 갖추어 놓고 때를 기다리며 때가 이르렀을 때 일을 성사시킨다.

覆水不返盆 : 한번 었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覆 뒤집힐 복; 뒤집히다, 반전하다, 넘어지다, 전도되다, 무너지다, 망하다

返 돌아올 반;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돌려주다, 바꾸다, 새롭게 하다

盆 동이 분; 동이, 밥 짓는 그릇, 소금 굽는 그릇

125. 存乎人者, 莫良於眸子 : 상대방을 알려면 눈을 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富貴逼人 :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면 부귀가 저절로 찾아옴

逼 : 닥칠 핏; 닥치다, 가까이 다가오다, 협박하다, 위협하다, 황급하다, 급박하다

126. 爲山九仞, 功虧一簣 : 구인의 높이로 산을 쌓은 공도 하나의 삼태기로 무너진다.

不動心 : 마음이 외계의 충동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음.

127. 明極則過察而多疑 : 통찰력이 지나쳐서 너무 살피면 의심이 많아진

다.

釜中之魚 : 솥 안에 있는 물고기, 즉, 얼마 안 남은 삶이란 뜻.

128. 人生百年, 晝夜各分 : 인생 백년이라 해도 낮과 밤이 반반이다

焚書坑儒 : (역) 중국의 진시황이 민간의 서적을 불사르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갱유분서.

焚 불사를 분; 불사르다, 타다, 불을 놓아 사냥을 하다, 화형(火刑)하다

坑 구덩이 갱; 구덩이, 구덩이에 묻다

儒 선비 유; 선비, 유학, 부드럽다

129. 二人同心, 其利斷金 :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은 금속도 자를 수 있다.

不俱戴天之讐 :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즉,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

130. 言顧行, 行顧言 : 말할 때는 행동할 것을 고려하고, 행동할 때는 한 말을 상기하라.

不肖 : 아버지를 닮지 않아 미련하다는 뜻으로,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 아버지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함. 또는 그런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인칭대명사】

① ‘불초자(不肖子)’의 준말. 不肖小生

② 자기의 겸칭.

-----• ~ 자식

-----• ~ 소생 부모님께 문안 인사 올립니다.

——-하다

肖 닮을 초; 닮다, 골상(骨相).육체가 닮다, 작다, 꺼지다, 녹다, 없어지다

131. 疑謀勿成 : 일을 시작할 때는 의심나는 것을 해명하고 만전을 기하라.

鵬程萬里 : ① 앞길이 매우 멀고도 멀.

② ‘전도가 양양한 장래’를 비유한 말.

-----• ~의 원대한 꿈.

鵬 봉새 봉; 봉새,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하며 한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상상의 새

程 단위 정; 길이의 단위, 도량형의 계량기, 법, 법도

132. 衆怒難犯, 專欲難成 : 대중의 분노는 저항하기 어렵고, 자신의 욕망도 이루기가 힘들다.

髀肉之嘆 : 능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한갓 세월만 보냄에 대한 탄식.

髀 넓적다리 비; 넓적다리, 넓적다리의 바깥 쪽, 넓적다리뼈, 대퇴골(大腿骨), 장딴지

133. 細人之愛人也以姑息 : 소인은 당장 편안함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貧賤之交不可忘 : 빈곤하고 어려울 때 사귀 친구는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 한다.

134. 養心莫善於寡慾 :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려면 욕심이 적어야 한다.

過慾 : 욕심이 많음 , 寡慾 : 욕심이 적음

氷炭不相容 : 얼음과 숯불은 섞일 수 없다는 뜻이니, 얼음과 숯불처럼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하지 못함을 이른다.

135. 善用人者爲之下 : 사람을 잘 부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

不爭之德 : 뛰어난 지휘관은 무력을 난용하지 않는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는다. 이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힘의 대결을 삼간다.

死孔明走生仲達 :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도망치게 한다.

136. 處事深遠, 則近於迂矣 : 일에 임할 때 너무 심원하면 곧 우에 가깝

다.

迂 : 멀 우; 멀다, 길이 멀다, 물정에 어둡다, 먼 길, 굽히다, 마음을 비
뚫어지게 만들다, 기세를 꺾다, 억제하다.

辭達而已 : 문장은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미사여
구는 필요없다.

137. 人莫鑑於流水 而鑑於止水 :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멈춰 있는 물을 거울로 삼는다.

- 기성관념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유동하는 정세에 제대
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승부도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면 몸이 굳
어져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明鏡止水 :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란 뜻으로, 맑고 고요한 심경을 이
름.

四面楚歌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중국 초(楚)나라 항우가 한(漢)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었
던 고사에서 유래함》.

138.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似而非 :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사시이비(似是而非).

-----• ~ 기자

-----• ~ 종교.

139. 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 :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긴다 해도 그것은
최선의 책이 아니다.

-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군사를 항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 비참한 승리보다는 현명한 패배가 나을 수도 있다.

畫蛇添足 : 뱀의 다리. 즉 쓸데없는 일을 한다.

140. 人生如朝露 : 인생의 무상함은 아침 이슬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四海兄弟 :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와 같다는 뜻으로, 친밀함을 이르
는 말. 사해동포.

141. 疾, 在膏之上, 膏之下 : 병이 명치에 들었도다.

殺身成仁 :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룸. 즉,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림.

142. 運用之妙存乎一心 : 운용의 묘는 그 一心에 있다.

三顧草廬 : 중국 삼국 시대에,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세 번이나 방문하여 마침내 그를 군사(軍師)로 삼았다는 데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말. 초려삼고.

顧 돌아볼 고; 돌아보다, 사방을 둘러보다, 응시하다,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반성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찾다, 방문하다

廬 오두막집 려{여};오두막집, 주막, 여인숙, 임시 거처

143. 無急勝而忘敗 : 이기기를 서두르지 말고 패배했을 때를 잊지 말라.

三年不飛又不鳴 : 크게 활동할 기회를 기다린다.

144. 疑心生暗鬼 :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온갖 무서운 망상이 인다.

- 잘못된 豫斷이나 선입관에 의해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는 愚는 없어야겠다.

喪家之狗 : 초상집의 개. 즉, 궁상맞고 초라한 모습.

145. 故舊無大故, 則不棄也 : 옛 친구는 큰 과오가 없는 이상 버려서는 안된다.

大故 : 큰 사고

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덧없이 변천함이 심함을 비유하는 말. 벽해상전. 상전창해. 창상(滄桑).

146. 顧小利則大利之殘也 : 작은 이익에 얽매이면 큰 이익을 놓친다.

小貪大失

書足記名姓而已 : 글은 자기 성명만 쓸 줄 알면 된다.

147. 治大國若烹小鮮 :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先着鞭 : 남보다 먼저 채찍을 휘두른다. 선수를 친다는 뜻

① 남보다 앞서 시작하거나 자리를 잡음. 선참(先站).

② 남보다 앞서 공을 세움.

着 붙을 착{저}; 붙다, 입다, 옷을 입다, 신을 신다

鞭 채찍 편; 채찍, 매질하다, 옛날 형벌의 이름

148. 人生減省一分, 便超脫一分 : 세상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勢不兩立 : 비슷한 세력 둘이 병립할 수 없다는 뜻.

1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학문을 해도 사색하지 않으면 애매하고 사색도 학문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다.

細腰 : 버들가지처럼 가느다란 허리로 미녀를 가리킨다.

150. 非吳下阿蒙 : 옛날 오나라 도읍에 있던 蒙君이 아니로다.

笑中有刀 : 웃음 속에 칼이 있다.

151.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 군자는 말이 어눌하더라도 실행에는 민첩하다.

宋襄之仁 : 아무 쓸모도 없는 인정

152. 居安思危 : 평안할 때에 위태로워질 것을 생각하라.

水廣者魚大 : 물이 많으면 큰 물고기가 산다.

153. 久受尊名下祥 : 높은 지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 사람은 누구나 榮譽를 좋아한다. 그러나 올라가면 轉落이 있고, 榮譽도 오래 이어지면 화의 근본이 된다.

明哲保身 :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전함.

修己不責人 : 자기 몸을 수양하고 남을 책망하지 않음

“향기 높은 꽃을 방 안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덧 그 芳
香이 몸에 배게 되는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물을
벗으로 가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향기를
풍기는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신
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154. 往者不追, 來者不拒 : 가는 사람은 뒤쫓지 말고 오는 사람은 거절
하지 마라.

水到渠成 : 물이 흘러서 자연히 개천을 이룸. 학문을 열심히 닦으면 깨
달음이 있다.

155. 毋私小惠而傷大體 : 작은 은혜 베풀기에 급급하여 전체적인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首鼠兩端 :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
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鼠 쥐 서; 쥐, 임금 측근에서 해독을 끼치는 간신의 비유, 근심하다
端 바를 단; 바르다, 곧다, 옳다, 바로잡다, 진실

156. 毋意, 毋必, 毋固, 毋我 : 주관으로 억측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무
리하게 관철하지 않고, 한 가지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 인생의 역경을 무수히 헤쳐 나가면서 자기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야 위
와 같은 공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다.

水魚之交 :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친한 관계를 이룸.

157. 公事有公利, 無私忌 : 공적인 일에는 공적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며

誰知烏之雌雄 : 까마귀의 암수는 구별하기 어렵다. 시비를 분별하기 어
렵다.

誰 누구 수;누구, 어떤 사람, 묻다, 찾아 묻다, 옛날, 일설은 발어사

雌 암컷 자; 암컷, 지다, 패배하다, 약하다, 쇠약해지다

雄 수컷 웅; 수컷, 이기다, 승리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158. 敬親者不敢慢於人 :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깔보지 않는다.

夙興夜寐 :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며 부지런히 일함.

夙 일찍 숙; 일찍, 삼가다, 조신하다, 옛날, 옛날부터

興 일 흥; 일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관(官)이 징수하다

夜 밤 야; 밤, 성(姓), 고을 이름

寐 잠잘 매; 잠자다, 죽다, 곤들매기(鮓)

159. 人生大病只是一傲字 : 인생의 가장 큰 병폐는 오직 한 글자 傲자이다.

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60. 善待問者如撞鐘 : 묻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을 치는 것과 같다.

脣齒之國 : 입술과 이처럼 이해관계가 밀접한 두 나라.

161. 大辯如訥 :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말더듬이처럼 보인다.

食指動 : 집게 손가락이 움직인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조짐이다. 변하여, 의심이 생긴다.

162. 有陰德者必有陽報 : 음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보답이 돌아온다.

身言書判 : 사람을 쓸 때, 용모, 말투, 글씨, 판단력, 이 네 가지를 보고 기용한다.

163. 行險以徼倖 : 위험한 일을 하면서 요행을 기다린다.

徼倖 : ② 뜻밖에 얻는 행복. 또는 뜻밖으로 운수가 좋음.

-----• ~을 바라다

-----• ~히 합격되다.

徼 구할 요; 구하다, 훔치다, 순찰하다, 순행하다

倖 요행 행; 요행, 간사하다, 아첨하다, 괴다, 사랑하다.

愼終如始 : 일의 마지막에도 처음과 같이 신중하게 한다.

164. 辭讓之心, 禮之端也 :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다.

165. 母友不如己者 :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마라
弱肉強食 :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힘.

166. 不知其子, 視其友 : 자기 아들을 잘 모르겠으면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라

羊頭狗肉 : 양의 대가리를 내어놓고 실은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찮음.

-----• ~식 정책으로 기만하다.

167. 過猶不及 :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猶 오히려 유; 오히려, 마치 -와 같다, 조차, 지금도 역시, 그 위에 더, 마땅히 -야 한다(應), 써(以)

及 미칠 급; 미치다, 이르다, 미치게 하다, 끼치다, 밋, 와

良工苦心 : 재주가 능한 삶의 가슴속에는 걱정이 많다.

168. 牝雞之晨, 惟家亡索 : 암탉이올면 그 집안이 망한다.

牝 암컷 빈; 암컷, 음(陰), 골짜기

雞 닭 계; 닭, 가금(家禽)

晨 새벽 신; 새벽, 아침, 닭이 울다, 방성(房星)의 이칭(異稱)

索 : 찾을 색{동아줄 삭}; 찾다, 동아줄, 노, 어질다, 다하다, 꼬다, 새끼 꼬다, 가리다, 선택하다

良禽擇木 : 어진 선비는 임금의 됄됨이를 잘 파악한 후에 섬긴다는 비유

169. 鸛鷥巢於深林不過一枝 : 뱀새가 숲에 보금자리를 트는 데 필요한 것은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다.

鸛 뱀새 초; 뱀새, 황작(黃雀)

鵲 굴뚝새 료{요}; 굴뚝새, 메추라기, 개개비, 휘파람과에 딸린 작은 새
巢 ; 집 소; 집, 깃들이다, 보금자리를 짓다, 모이다, 모여서 무리를 이루다

梁上君子 :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 즉 도둑놈

170. 過而不改 是謂過矣 :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謂 : 이를 위, 이르다, 일컫다, 알리다, 설명하다, 비평·논술하다, 가리키다, 생각하다, 생각건대, 이름, 이르는 바, 취지, 일컬음, 명칭

良藥苦於口 : 좋은 약은 입에 쓰다.

過則勿憚改 : 과오를 저질렀으면 즉시 고치라.

憚 꺼릴 탄; 꺼리다, 삼가다, 화내다, 성내다, 험박하다, 떨게 하다

171. 壽則多辱 : 오래 살면 욕도 많이 당한다.

- 아들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귀찮은 일만 생길 것이고, 장수하면 그만큼 辱을 더보아야 한다.

量入爲出 : 국가의 세입을 조사하여 지출을 결정한다.

172. 花發多風雨, 人生足別離 : 꽃이 만발하면 비바람도 많고 인생에는 이별도 많더라.

兩虎相鬪 :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운다.

173. 四時之序, 成功者去 :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을 보라. 공을 이루면 떠나야 되는 법이다.

養虎憂患 : 호랑이를 길러서 화를 만든다.

174. 遠水不救近火也 : 먼 곳에 있는 물로 가까운 곳의 불을 끄지 못한다.

魚網鴻離 : 물고기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기러기가 걸렸다는 뜻, 즉 구하려는 것은 얻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얻음.

鴻 큰 기러기 홍; 큰 기러기, 크다, 성하다, 번성하다

離 떼놓을 리{이}; 떼놓다, 가르다, 끊다, 나누다, 열다, 헤어지다, 물러나

다, 떠나가다, 배반하다, 붙다, 부착하다, 나란히 줄서다

175. 非無安居也, 我無安心也 : 평안하지 못하다고 불평하지 말라.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게 평안하다.

漁父之利 :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본다는 비유

176. 始如處女, 後如脫兔 : 처음에는 처녀처럼 조용히 하고 나중에는 도망치는 토끼처럼 날쌔게 하라.

言過其實 :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그 실행이 부족함.

177. 諍臣必諫其漸 : 간언하는 신하는 반드시 조짐을 보고 하여야 한다.

諍臣 : 임금의 잘못을 바른말로 간하는 신하.

諍 간할 쟁; 간하다, 간하는 말이나 글, 다투다

言行相反 :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

178. 糟糠之妻不下堂 : 귀해지거나 부해지더라도 조강지처는 버리거나 팔시해서는 안 된다.

如履薄冰 : 얇은 얼음을 밟듯이 몹시 위험하다.

179. 治國之道在乎寬猛得中 :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은 너그러움과 엄격함의 균형을 잡는 데 있다.

如失一臂 :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 즉 가장 믿고 힘이 되는 사람을 잃었다는 비유의 말

180. 泣而斬馬謖 : 눈물을 흘리며 아끼던 부하의 목을 치다

如出一口 :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다.

181. 攻人之惡, 毋大嚴 : 남의 과오를 지적할 때에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燕雁代飛 : 제비가 올 때면 기러기는 떠난다. 즉,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뜻

燕 제비 연; 제비, 잔치, 주연(酒宴), 편안하다

雁 기러기 안; 기러기, 거위, 가짜, 모조

182. 亢龍有悔

올라갈 데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을 뿐이다.

亢 목 항; 목, 목구멍, 오르다

悔 뉘우칠 회; 뉘우치다, 아깝게도, 유감스럽게도, 뉘우침, 후회

-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오른 자가 轉落을 하지 않으려면 물러설 시기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막 올라갔을 때부터 은퇴의 시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榮枯盛衰 : 인생이나 사물의 성하고 쇠함이 서로 뒤바뀌는 현상.

-----• ~를 거듭하다.

榮 꽃 영; 꽃, 꽃이 피다, 성하다, 영화, 영달

枯 마를 고; 마르다, 초목이 마르다, 물이 마르다, 야위다, 수척하다, 죽다, 비다, 오래 되다

盛 담을 성;담다, 채우다, 세상에 차려 놓은 음식, 바리, 주발

衰 쇠할 쇠; 쇠하다, 약해지다, 작아지다, 늙다, 여위다, 줄다, 게으르다, 세력이 없어지다, 줄다, 줄이다, 차(差), 등차(等差)

183. 吳越同舟 :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함의 비유.

盈滿之咎 : 가득 차면 기운다. 즉,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도리어 화가 찾아온다.

盈 찰 영; 차다, 그릇에 가득 차다, 가득 차 넘치다, 자라다, 퍼지다

滿 찰 만; 차다, 가득하다, 넉넉하다, 둥그레지다, 곡식이 익다, 활을 힘껏 당기다, 교만하다, 속이다

咎 허물 구; 허물, 재앙, 근심거리, 책망하다

“天道는 넘치는 것을 줄이고, 부족한 것[겸손]을 더한다.
地道는 높은 곳을 무너뜨려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한다.
神靈은 교만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려 해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184. 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 : 배운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쳐 본
연후에 어려움을 안다.

禮失則昏 : 사람이 예의를 잃으면 혼란해지는 법이다.

185. 劍待砥而後能利 : 칼은 숫돌에 갈아야만 날이 서는 법이다.

禮之用 和爲貴 : 예절의 이행에는 조화가 귀중하다.

186. 愛者憎之始也, 德者怨之本也 : 사랑은 미움의 시초이고 은덕은 원망의 근본이다.

醴酒不設 : 스승을 대접하는 예의가 차츰 줄어들다.

187. 溫溫恭人 維德之基也 : 온화하고 공손한 것이 덕의 기초이다.

維 바 유; 바, 밧줄, 매다, 받치다

五斗米 : 닷 말의 쌀이란 뜻으로,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비유하는 말.

188. 信言不美, 美言不信 :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실이 없다.

五里霧中 : 오 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
해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의 비유.

189. 識前言往行, 以蓄基德 : 옛 사람의 훌륭한 언행을 익혀서 그것으로
덕을 몸에 익힌다.

往 갈 왕; 가다, 옛, 예, 이따금

寤寐思服 : 자나 깨나 생각함. 즉 잊지 못하는 것.

190. 人之其所親愛而辟焉 : 사람은 그 친애하는 바에 따라 치우치는 마

음을 가지게 마련이다.

壁 : 벽 벽; 벽, 울타리, 벼랑

- 리더 된 자로서 사람을 친애하는 것은 좋지만, 편애로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傲不可長 : 오만한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된다.

傲 거만할 오;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거만

191. 忌則多怨 : 미워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면 원망을 많이 사게 된다.

忌 꺼릴 기;꺼리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질투하다, 시새우다
기 (忌)

기중(忌中). 상중(喪中).

五十步百步 :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말.
오십보백보

192. 雖有鎡基, 不如待時 : 비록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때를 기다려 농사 짓는 것만 못하다.

雖 : 비록 수;비록, 그러나, =라 하더라도, =라 할지라도, 벌레 이름, 밀다, 추천하다

鎡 호미 자; 호미, 괭이, 솔의 한 가지, 뚜껑이 있는 솔

烏有反哺之孝 : 까마귀들은 새끼 때 길러준 어미 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미가 늙은 뒤에 먹이를 물어다 봉양하는 효성이 있다.

反哺之孝 :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

哺 먹을 포; 먹다, 먹이다, 어린아이의 병명

193. 不學便老而衰 : 항상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면 늙지 않는다.

烏合之卒 : 까마귀가 무질서하게 몰려 있다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 오합지중(烏合之衆).

194. 人道惡盈而好謙 :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것

이 인지상정이다.

盈 : 찰 영; 차다, 그릇에 가득 차다, 가득 차 넘치다, 자라다, 퍼지다

玉昆金友 : 금과 옥으로 비유하여 남의 형제를 칭찬한 말

昆 형 곤; 형, 말, 뒤, 다음, 나중, 자손, 후에

195. 不積跬步, 無以至千里 : 한 발짝 한 발짝 쌓아나가지 않으면 천리 길을 갈 수 없다.

跬步 ; 반걸음 또는 반걸음 정도의 가까운 거리.

跬 반걸음 규; 반걸음, 한 발 내디딘 거리, 가깝다, 적다

屋梁落月 :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함.

梁 기장 량{양}; 기장, 기장밥, 쫄은 곡식

196. 望之似木鷄 : 살펴보니 마치 나무닭과 같더이다.

屋上加屋 : 지붕 위에 또 지붕, 쓸데없는 일을 이중으로 함.

197. 後生可畏 : 자라나는 후배들을 두려워하라.

玉石混淆 : 착한 자와 악한 자가 구별 없이 섞여 있음.

混 섞을 혼;섞다, 섞이다, 흐리다, 혼탁하다, 합하다, 맞추다

淆 뒤섞일 효;뒤섞이다, 어지러워지다, 흐리다, 흐리게 하다

198.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 죄 없는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률을 굽히는 것이 낫다.

辜 : 허물 고; 허물, 희생을 잡아 각을 뜨는 일, 책형(磔刑), 죄인을 기둥에 묶어 찢러 죽이는 일

沃野千里 : 기름진 들판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음을 가리킴.

199. 燕雀安知 鴻鵠之志哉 ;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鴻鵠의 뜻을 알리오

鴻 큰 기러기 홍;큰 기러기, 크다, 성하다, 번성하다

鵠 고니 곡; 고니, 희게 하다, 희다, 흰빛

- 높고 큰 기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밀고 나가야지 구태여 남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屋如七星 : 가난한 집을 말함. 지붕이 헐어서 뚫린 구멍이 마치 북두칠성 같다는 뜻.

200. 不患人知不己知, 患不知人也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屋烏之愛 : 사랑하는 이의 집 위에 앉아 있는 까마귀도 귀엽다는 뜻.

201. 聖人之治藏於民不於府庫 :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보화를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백성에게 쌓아둔다.

溫柔敦厚 : 성품이 온화하고 인정이 두터움

202. 將軍之事, 靜以幽 : 군의 장수된 자는 깊이 통찰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溫衣美飯 : 따뜻한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

203. 先和而後造大事 : 먼저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도모하라.

瓦全玉碎 : 기왓장으로 남는 것보다 옥으로 부서지는 게 낫다.

瓦全 : 아무 보람 없이 헛되이 삶을 이어 감.

玉碎 :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음.

-----• ~의 각오

-----• ~를 결심하다.

204. 天地, 地知, 子知, 我知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안다.

臥薪嘗膽 :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로운 일을 참음.

섞여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딤.

臥 옆드릴 와;옆드리다, 옆드려 자다, 누워 자다, 거짓 자다, 넘어지다,
쉬다, 자리에 들다, 었다, 그만두다, 잠자리
薪 쉼나무 신;쉴나무, 땀나무, 풀, 잡초, 나무하다
嘗 맛볼 상; 맛보다, 시험 삼아, 시험하다, 일찍이
膽 쓸개 담; 쓸개, 담력, 마음, 충심(衷心)

205. 己所不欲, 勿施於人 :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施 : 베풀 시;베풀다, 퍼지다, 널리 전하여지다, 행하다

玩物喪志 : 물건을 가지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자기 본심을 잃음.

玩 희롱할 완;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익다, 익숙해지다, 사랑하다

喪 죽을 상; 죽다, 복(服), 복제(服制), 복을 입다, 상제 노릇을 하다

206. 大行不告細謹, 大禮不辭小讓 : 큰 일을 앞에 두고 작은 일에 구애
되지 마라.

王父 : ① 편지 따위에서, 남에게 자기 할아버지를 일컫는 말.

② 임금의 아버지.

鴻門之會

207. 富在知足 : 진실된 부는 족한 줄을 아는 데 있다.

往而不來者年也 : 세월은 한번 가면 두 번 다시 안 온다.

208. 先王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 천하가 걱정하기 전에 걱정하고
천하가 즐긴 후에 즐기라

王佐之材 : 왕을 보좌할 만한 인재

209. 笑而不答 卽 自閑 :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
롭다.

王化之基 : 임금이 베푸는 德化의 기본

210. 衆心成城, 衆口鑠金 : 많은 사람의 마음은 城을 이루고 많은 사람
의 말은 쇠를 녹인다.

鑠 녹일 삭; 녹이다, 녹다, 달구다, 태우다

王侯將相寧有種乎 :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211. 識時務者在乎俊傑 :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俊傑이다.

畏首畏尾 : 남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함.

212. 草創興守成熟難 : 창업이 더 어려운가, 수성이 더 어려운가

遼東豕 : 본인은 제가 잘난 체 자랑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다.

[요동의 어떤 사람의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가 흰색이었다. 신기하여 임금께 바치려고 하동(河東)에 갔는데 그곳의 돼지들이 모두 머리가 희므로 부끄러워 되돌아 왔다는 故事.]

遼 멀 요{료};멀다, 시간.거리 등이 멀다, 늦추다, 느슨하게 하다, 얼룩조릿대

豕 돼지 시; 돼지

213. 德者才之生, 才者德之奴 :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노예이다.

瑤林瓊樹 : 재질이 비상하여 보통 사람보다 비범함.

瑤 아름다운 옥 요; 아름다운 옥, 아름다운 돌, 사물의 미칭, 북두 자루
瓊 옥 경; 옥, 옥의 아름다운 빛깔, 주사위

214. 國士無雙 :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큰 인물

妖不勝德 : 부정한 것은 정의를 이기지 못함.

“天道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복종시키며,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게 하며, 조용히 있으면서도 깊은 謀計를 꾸민다.”

215. 大道廢有仁義 : 대도가 없어지자 인의를 운운하게 되었다.

燎原之火 : 들을 태우는 불, 기세가 맹렬하여 훨훨 타 번지므로, 번지기 쉬운 악, 또는 맹렬한 기세에 비유됨.

燎 뜰에 세운 햇불 료{요}; 뜰에 세운 햇불, 불을 놓다, 밝다, 비치다, 불 붙다

原 근원 원; 근원, 들, 벌판, 용서하다

216. 兵者凶器也, 爭者逆德也 : 무기는 흉기이며 전쟁은 덕을 거역하는 것이다.

要言不煩 : 요령 있는 말은 번잡하지 않다.

煩 괴로워할 번; 괴로워하다, 답답하다, 번거롭다, 귀찮다, 괴롭히다, 욕 보이다, 창피를 주다

번 (煩)

217. 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 군자에게는 평생의 번민은 있어도 외부로부터 오는 마음의 동요는 없다.

妖由人興 : 요사스러움은 양심을 잃었을 때 일어난다.

218. 巧言令色 鮮矣仁 : 아첨과 가식적인 웃음을 웃는 자는 인의 덕이 없다.

巧言令色 :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鮮 ; 고을 선 , 곱다, 뚜렷하다, 깨끗하다

欲不可從 :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재앙이 뒤따름.

剛毅木訥 : 강직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순박하여 말이 적음.

219. 小人溺於水, 君子溺於口, 大人溺於民 : 소인은 물에 빠지고 군자는 말에 빠지고 대인은 백성에 빠진다.

欲炙之色 : 물건을 보고 탐내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을 이름.

炙 고기 구울 자{적}; 고기를 굽다, 굽다, 구운 고기, 가까이하다, 친히 가르침을 받다

220. 矜其能, 喪其功 : 재능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欲知來者察往 : 미래의 일을 알려면 과거의 일을 잘 살펴야 한다.

221. 小不忍則亂大謀 :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어 낼 수 없다.

龍瞳鳳頸 : 용의 눈동자와 봉황의 목. 즉, 귀인의 상

222. 朝三而暮四 :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龍頭蛇尾 : 처음은 좋으나 나중에는 나빠짐을 이름.

223. 天道是耶非耶 : 하늘의 도는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龍蟠鳳翥

蟠 서릴 반; 서리다, 몸을 감고 엮드려 있다, 두르다, 주위를 빙 감아 돌다, 쌓이다

翥 : 아오를 저;날아오르다

224. 天網恢恢, 疎而不失 :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다.

恢 넓을 회; 넓다, 넓히다, 갖추다, 갖추어지다

疎 : 트일 소;트다, 통하다, 트이다, 막힌 것이 트이다, 멀다, 친하지 않다, 우월하다, 서투르다, 늦다, 길다

用長用短 : 긴 것과 짧은 것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

225. 投我以桃, 報之以李 : 내가 복숭아로 받았으면 오얏으로 갚는다.

庸中佼佼 : 무리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일컬음.

庸 쓸 용;쓰다, 공(功), 써, -로써

佼 : 예쁠 교, 예쁘다, 교활하다, 어지럽다

226. 小人閒居爲不善 : 소인은 한가하게 지낼 때 좋지 못한 일을 계획한

다.

閒 : 틈 한{사이 간}; 틈, 사이, 들이다, 받아들이다

用錐指地 : 조그마한 지식으로 큰 도리를 궁구한다는 어리석음을 비유.

227. 以疑決疑, 決必不當 : 애매한 근거로 애매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牛驥同皁 : 느린 소와 천리마가 한 마구간에 매여 있다는 뜻이니, 곧 어리석은 사람과 준재를 똑같이 취급함을 이름.

驥 천리마 기; 천리마(千里馬), 뛰어난 인물, 준재(俊才)

皁 : 하인 조; 하인, 마구간, 말 우리

228. 德不孤, 必有隣 :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이다.

雨奇晴好 : 비오는 경치도 좋지만, 맑은 날의 경치도 볼 만함.

晴 ; 갠 청; 개다, 비가 그치다, 하늘에 구름이 없다, 마음이 개운하다
청 (晴)

229. 千金之子不死於市 : 부잣집 아들은 개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牛刀割雞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뜻으로, 큰 재능이 작은 일에 쓰임의 비유.

230.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연에 순응하면 애락이 없으며 속박에서 해방된다.

虞美人草 : 항우가 죽은 후 그의 애첩 우희가 자결했는데, 그녀의 무덤에서 난 풀 이름.

231. 羝羊觸藩羸其角 : 숫양이 뿔로 울타리를 받다가 울타리에 뿔이 박혀 괴로워하다.

- 易經에도 小人은 세를 타고 돌진하지만, 군자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고 못 박고 있다. 好調일 때야말로 긴장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

雨不破塊 : 비가 조용히 내려 흙덩이를 부수지 않는다는 뜻으로, 태평한

상태를 말함.

塊 : 흙덩이 괴; 흙덩이, 흙, 덩어리

232. 善戰者 求之于勢 不責于人 :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조직 전체의 세를 중시한다.

憂^ㅅ殷殷 :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모양.

233. 宰相不親細事 : 재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尤而效之 : 남의 과실은 나무라면서 자기도 똑같은 과실을 저지름.

尤 더욱 우; 더욱, 특히, 그 중에서도, 같지 않다, 멀리 떨어지다, 동떨어지다

效 본받을 효; 본받다, 본받아 배우다, 주다, 수여(授與)하다, 드리다, 바치다

234. 智者千慮必有一失, 愚者千慮必有一得 : 지혜로운 사람도 한 가지 실수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優哉遊哉 : 침착하고 여유 있다.

優 넉넉할 우; 넉넉하다, 도탑다, 암전하다

遊 놀 유; 놀다, 즐겁게 지내다, 여행하다, 취학하다, 자적하다, 벼슬에 나아가다, 사귀다, 틈, 무사(無事), 놀이

235. 麒麟之衰也, 駑馬先之 : 천리마도 노쇠해지면 노마에게 뒤지는 수가 있다.

駑 둔할 노; 둔하다, 말의 걸음이 무디다, 사람의 재능이 없고 미련한 모양

- 말의 경우 노쇠해지면 그것이 다리에 나타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뇌에 나타난다. 사고가 硬直되어 柔軟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雲開見日 : 오랫동안 막혀 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열림.

236. 福生於微 禍生於忽

忽 소홀히 할 홀;소홀히 하다, 갑자기, 돌연, 다하다, 멸(滅)하다, 말하다
雲狀若犬 : 세상이 혼란하면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뜻.

237. 智猶水也, 不流則腐 : 지혜란 마치 물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雲中白鶴 : 고상한 기품을 가진 사람.

238. 交友須帶三分俠氣 : 친구와 교제할 때는 의협심을 3할만 발휘하라.
雄才大略 : 뛰어난 재주와 꾀

239. 處變當堅百忍以圖成 :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는 인내로써 초지를 관철하라.

- 百忍은 화합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라, 초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百忍의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한다.

百忍 :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냄.

遠交近攻 :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이웃 나라를 공략하는 일《중국 전국 시대에 범저(范雎)가 주창한 외교 정책》.

240. 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 : 극한 상황의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元規之塵 : 내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남의 행위

241. 無嬰人主之逆鱗 則幾矣 : 임금의 역린이 닿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상의 설득이다.

嬰 : 갓난아이 영; 갓난아이, 두르다, 빙 둘러치다, 목에 걸다

怨入骨髓 : 원한이 골수에까지 사무친다.

髓 : 골수 수;골수, 물질의 중심에 있어 굳기름처럼 응고(凝固)된 것, 사물의 중심

242. 疑行無名, 疑事無功 : 애매하게 행동하면 명성을 얻지 못하고 모호하게 일을 하면 공을 세우지 못한다.

怨憎會苦 : 〔 불 〕 팔고(八苦)의 하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 살아야 하는 고통.

243. 非知之難也 處知則難也 : 안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려운 것이다.

遠親不如近隣 :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244. 無遠慮, 必有近憂 : 먼 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근심이 생긴다.

元亨利貞 : ①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천도(天道)의 네 원리. ‘원’은 봄으로 만물의 시초, ‘형’은 여름으로 만물이 자라고, ‘이’는 가을로 만물이 여물고, ‘정’은 겨울로 만물을 거둠을 뜻함.

② 사물의 근본이 되는 원리.

元 으뜸 원; 으뜸, 근본, 연호(年號)

亨 형통할 형; 형통하다, 제사, 드리다, 올리다

利 날카로울 리{이}; 날카롭다, 화(和)하다, 통하다

貞 곧을 정; 곧다, 정하다, 인정하다, 정조, 여자의 절개

245. 杞憂 : 〔옛날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열자(列子)〕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 ~에 그치다

-----• ~에 불과하다

-----• 그 걱정은 ~에 지나지 않았다.

杞 나무 이름 기; 나무 이름, 구기자나무, 냇버들, 갯버들, 고리버들, 나라 이름, 성(姓)

月光讀書 : 달빛으로 책을 읽음.

남의 작은 과실을 나무라지 않는다 - 작은 과실은 책망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것을 자꾸 들춰내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남의 陰私를 발설하지 않는다. -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뜻이다. 누구라도 남에게 숨기고 싶은 일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것은 모른 체하란 말이다.

남의 舊惡은 말하지 않는다. - 옛 상처는 잊어버려 주라는 말이다.

타인에 대하여 이상 세가지를 마음 써준다면 자신의 인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원한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246. 千丈之堤 以螻蟻之穴潰 : 높고 튼튼한 제방도 개미나 땅강아지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螻 땅강아지 루{누}; 땅강아지, 청개구리, 악취, 또 악취를 풍기다
蟻 개미 의; 개미, 검다, 흑색, 동동주 위에 뜨는 거품, 옥저(玉蛆)
潰 무너질 궤; 무너지다, 성내다, 어지럽다

月旦 : 인물의 비평

① 매달 첫날. 초하룻날.

② '월단평(月旦評)'의 준말.

旦 아침 단; 아침, 해 돋을 무렵, 밤을 새우다, 밤이 새다

247. 樂天知命, 故不憂 : 하늘의 섭리에 따르고 편한 마음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므로 근심 걱정이 없다.

越畔之思 : 자기의 직분을 지킬 뿐 남의 직권을 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짐.

畔 두둑 반; 두둑, 논밭의 경계, 경계(境界), 100무(畝)의 경계, 물가, 물 녘

248. 奇貨可居 : 진귀한 물건이기에 사들 만한 가치가 있다.

月盈則食 : 달은 차면 기운다. 흥성하면 다시 망한다는 말.

盈 찰 영; 차다, 그릇에 가득 차다, 가득 차 넘치다, 자라다, 퍼지다

食 밥 식; 밥, 먹을거리, 먹다, 굶다, 깨물다, 새김질하다, 식언하다, 녹
봉을 받다, 식사

249. 猶螳螂之怒臂以當車轍 :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 앞을 가로막
는 것과 같다.

月下氷人 ;〔중국 진(晉)나라의 삭담(索統)이 얼음 위에서 얼음 아래의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고사에서〕 중매인. 월하노인.

螳螂之斧 : 螳螂拒轍

250. 君子以作事謨始 : 군자는 일을 시작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하는 법이
다.

遑道干譽 : 도리를 어기면서 백성의 칭송을 요구함.

干 : 방패 간; 방패, 범하다, 막다, 방어하다

譽 : 기릴 예; 기리다, 칭찬하다, 바로잡다, 가상히 여기다

251. 直木先伐, 甘井先竭 : 곧은 나무는 먼저 베어지고 물맛이 좋은 우
물은 먼저 마른다.

爲狼爲虎 : 인심이 사나운 것을 비유하는 말

狼 이리 랑{낭}; 이리, 짐승 이름, 어지러워지다, 어수선하다

252. 不患無位, 患所以立 : 지위가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실력을 기르는
데 힘을 쓰라

- 不虞는 인생에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불평불만만 터뜨린다면 전망은 더욱 흐려진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
기 자신을 부단히 연마한다면, 설령 결과야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자
기 자신을 납득시킬 수는 있지 않은가.

爲富不仁 : 재물을 모으게 되면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진 일을 하
지 않음.

253.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 : 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건만 인생은 해마다 늙어만 가누나.

位不期驕 :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교만이 생김

254. 緣木而求魚 :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爲善最樂 : 선한 일은 인생 최대의 낙이란 뜻

255. 所惡於上, 毋以使下 : 상사가 취하던 나쁜 태도를 스스로 부하를 부릴 때에는 취하지 마라.

威而不猛 : 위엄은 있으나 난폭하지 않음.

256. 人一能之 己百之 : 남이 한 번에 해낸 일이면 나는 백 번에 걸쳐서라도 꼭 해낸다.

韋編三絕 : 독서에 힘씀. 竹簡을 엮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만큼 읽었다는 데서 일컬어진 말.

韋 다름가죽 위; 다름가죽, 무두질한 가죽, 부드러운 것, 어기다

編 엮을 편; 엮다, 기록하다, 이어놓다, 맺다, 엮다, 짜다, 책, 책을 맨 끈

257. 臨下以簡, 御衆以寬 : 아랫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간략하게 하고 백성을 대할 때는 관용으로 대하라.

有脚陽春 :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치 봄이 만물을 따듯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을 비유한 말.

258. 內言不出, 外言不入 : 가정 내의 말은 밖에서 하지 말고 밖의 말은 가정에서 하지 마라.

有女懷春 : 성숙기에 이른 여자가 춘정을 느낌.

懷 품을 회; 품다, 품, 품안, 가슴, 마음, 생각, 정(情)

259. 書不必多看 要知其約 :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그 대략을 이해하도록 힘쓰라

惟利是視 : 의리의 유무는 묻지 않고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둬

260. 去無用之費 聖王之道天下之大利也 :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는 것은
성왕의 도요, 천하의 큰 이익이다.

遊說 :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 등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선거 ~

-----• 후보자들이 선거구를 돌며 ~하다.

遊 놀 유; 놀다, 즐겁게 지내다, 여행하다, 취학하다, 자적하다, 벼슬에
나아가다, 사귀다, 틈, 무사(無事), 놀이

說 말씀 설; 말씀, 말, 도(道), 도리(道理),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술하다,
논하다, 해석하다, 타이르다, 교육하다, 변명하다

261. 好稱人惡, 人亦道其惡 : 남의 욕을 자주 하면 남 역시 악으로 갚아
온다.

流水不腐 :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262. 怨豈在明, 不見是圖 : 원망은 분명하지 못한 법, 나타나지 않을 때
조처해야 한다.

豈 : 어찌 기; 어찌, 반어(反語)의 조사(助詞), 그, 발어(發語)의 조사, 바
라다

有始無終 : 시작은 있고 끝이 없음. 결과를 맺지 못함.

263. 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 : 나이 쉰 살이 되어서 49년간의 잘못을 알
았다.

唯我獨尊 : ①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이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

-----•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②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준말.

唯 오직 유; 오직, 발어사, 비록-하더라도(雖)

264. 一貴一賤, 交情乃見 : 한번 귀해지고 한번 천해져 보니 세상의 교
제가 무엇인지 알겠더라.

遊魚出聽 : 거문고 소리가 교교하여 물고기도 떠올라 들음.

265. 不憤不啓, 不悱不發 : 발분하지 않으면 계도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悱 표현 못할 비; 표현을 못하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다

柳葉眉 : 버들잎처럼 가는 눈썹

266. 韜晦無露圭角 : 재능을 감추어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

韜 : 감출 도; 감추다, 갈무리하다, 활집, 칼전대, 칼집에 꽂은 칼을 넣어 두는 자루

晦 그믐 회; 그믐, 음력에서 한 달의 맨 끝날, 어둡다, 캄캄하다, 어둠, 밤

圭角 ① 모나 귀퉁이의 뾰족한 곳.

② 사물이 서로 들어맞지 않음.

③ 말·뜻이나 행동 등이 남과 서로 맞지 않음.

圭 흘 규; 흘, 모, 모서리, 용량의 단위

柳營 : 장군이 있는 진영으로 細柳營의 준말

267. 民無信不立 :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의 정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謬悠之說 : 황당무계한 설

謬 : 그릇될 류{유}; 그릇되다, 어긋나다, 속이다, 기만하다

268. 喜怒不形於色 : 기쁨과 노함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다.

幽閑靜貞 : 여자의 덕이 높음

269. 有而不施, 窮無與也 :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해졌을 때 주는 자가 없다.

有賢而不知 : 현명한 사람이 민간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

270. 曲則全 : 구부러졌기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 노자는 직선적인 생활태도보다 곡선적인 생활태도가 이상적이라고 했다. 선두에 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생활태도가 좋다고도 했다. 노자는 또 오므라져 있기에 늘일 수가 있다. 음푹 패어져 있기에 물이 가득 찰 수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流血成川 : 전쟁에서 사상자가 많음을 가리키는 말.

271. 君之所讀者, 古人之糟魄已 :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 사람의 찌꺼기입니다.

- 기술의 비결과 경영의 감각은 오직 實踐 속에서만 몸에 익혀지는 것이다.

肉腐出蟲 : 일은 근본이 잘못되면 폐가 백출한다.

272. 兵形象水 : 군대의 움직임은 물의 모양과 같이 하라.

肉山脯林 : 고기와 술안주가 많음. 호화로운 잔치

脯 : 포 포;포, 저미어 말린 고기, 말린 과실, 포를 뜨다

273. 聞一以知十 : 하나를 알고 열을 안다.

允文允武 : 문무와 덕을 갖춘 어진 임금

允 : 진실로 윤; 진실로, 당(當)하다, 동의하다

274. 不責人小過, 不發人陰私, 不念人舊惡 : 작은 과실을 책망하지 말고, 비밀을 파헤치지 말며, 상처는 잊어버려 주어라.

隱居放言 : 속세를 떠나 살면서 자기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함.

275. 掘井九仞, 而不及泉, 猶爲棄井也 : 깊이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마라

蔭德有耳鳴 : 음덕은 귀에 울리는 소리 같아서 자기만이 알고 남은 모른다 뜻.

蔭德 : 숨은 덕행, 조상의 덕행

“ 옛날 天子에게 諍臣 7명만 있으면 아무리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았다. 諸侯에게 諍臣 5명이 있으면 아무리 무도한 제후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았다. 大夫에게 諍臣 3명만 있으면 아무리 무도한 大夫라 하더라도 그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선비에게 諍友가 있으면 그 몸이 명성을 잃지 않았다. 아비에게 諍子가 있으면 그 몸이 不義에 빠지지 않았다.”

* 諍臣 ; 임금의 잘못을 바른말로 간하는 신하.

276. 以管窺天 : 좁은 관을 통해 하늘을 본다.

窺 엿볼 규; 엿보다, 보다, 반걸음

泣數行下 : 눈물을 많이 흘림.

277. 怨不期深淺, 其於傷心 : 원한이란 깊고 얇음에 관계없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應天順人 ; 천명에 응하고 인위에 순응함

278. 治國猶如栽樹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

衣錦夜行 : 입신출세해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음.

279. 縱欲之病可醫, 而執理之病難醫 : 욕심을 따르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고집을 내세우는 병은 고치기 어렵다.

宜其室家 : 온 가족이 화목함.

宜 : 마땅할 의; 마땅하다, 마땅히, 마땅히-하여야 한다, 화목하다

280. 三十六策, 走是上計 : 수많은 전략가운데서도 도망가는 것이 최상이다.

意氣自如 : 태연자약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음

281. 明不及察, 寬不至縱 : 통찰력이 있되 사소한 일까지 살피지 않고,

너그럽되 방종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縱 : 늘어질 종; 늘어지다, 용서하다, 놓다, 활을 쏘다, 풀다, 쫓다, 불을 놓다

意馬心猿 : (불) 생각은 말처럼 달리고 마음은 원숭이처럼 설렌다는 뜻으로, 번뇌와 정욕 때문에 산란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음을 비유한 말.

282. 養子不教不之過 : 자녀를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음은 아버지의 큰 과실이다.

衣食者民之本 : 먹는 것, 입는 것은 백성들의 근본이다.

283.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 군자는 義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利를 먼저 생각한다.

以古爲鑑 : 옛것을 거울로 삼는다.

284. 桃李不言, 下自成蹊 :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밑에는 자연히 길이 생긴다.

蹊 : 지름길 혜; 지름길, 건너다, 질러가다, 기다리다

桃李 : ① 복숭아와 자두.

② 남이 천거한 어진 사람의 비유.

以卵投石 :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부딪히면 즉시 부서져 버린다.

285. 治國者若鋤田 去害苗者而已 :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밭에 김을 매듯이 잡초만 뽑아내면 된다.

鋤 팽이 누; 팽이, 풀을 베다, 김매다

耳目非是 : 얼굴색이 항상 다른 것

286. 善戰者 致人而不致於人 : 전투를 잘하는 장수는 먼저 주도권을 잡는다.

利門名路 : 이익과 명예를 얻는 길

287. 衣食足則知禮節 :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면 예절을 알게 된다.

以文會友 : 학문으로 친구를 사귄다

288. 國將興 必貴師而重傳 : 나라를 부흥시킨 왕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고 그를 존경했다.

傳 스승 부; 스승, 후견인, 시종들다

二姓之好 : 신랑 신부 집의 두터운 情誼를 이룸

289. 禍莫大於不知足 : 족한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以食爲天 : 백성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것이 가장 중함.

290. 恩若已出, 怨將誰歸 : 만약 은혜가 나에게서 나간다면 원한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以身殉利 : 이익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291. 處朋友, 務相下則得益, 相上則損 : 친구를 사귄데 있어 겸허하면 득이나 오만하면 해가 있을 뿐이다.

以心傳心 :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함

292.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거든 남을 먼저 출세시켜 주어라.

耳而目之 : 귀로 듣고 눈으로 봄. 즉, 틀림이 없다.

293. 下之事上也, 不從其所令而從其所行 :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기보다 윗사람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以一知萬 : 한 가지 이치로써 만 가지를 안다.

294. 以不貪爲寶 : 탐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보물이다.

以血洗血 : 피로써 피를 씻음. 즉, 더욱 악을 범함.

295. 見善則遷, 有過則改 : 선을 보면 즉시 배우고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친다.

人間萬事 塞翁之馬 : 인간사에는 화와 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96. 爲其不可復者也, 則事寡敗矣 : 수정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하면 실패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

人苦不知足 : 사람은 물질에 만족하지 못함을 괴롭게 여긴다.

297. 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 나무는 먹줄을 따라 바르게 켤 수 있고 왕은 간언에 따르면 성군이 된다.

繩 : 줄 승; 줄, 새끼, 먹줄, 법도

人傑地靈 : 인물은 걸출하고 땅의 형세는 수려함.

298. 大人者, 言不必信, 行不必果 : 대인은 언필신, 행필과에 구애받지 않는다.

人面獸心 :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이라는 뜻.

299. 智者過之, 愚者不及也 : 슬기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人生七十古來稀 : 사람의 수명은 예로부터 70세 살기도 어려웠다.

300. 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 성실하면 지지를 얻고 교만하고 제멋대로면 지지를 잃는다.

人心難測 :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301. 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疢疾 : 훌륭한 인격과 빼어난 재능은 환난속에서 연마된다.

慧 : 슬기로운 혜; 슬기롭다, 총명하다, 사리에 밝다, 슬기, 능력, 교활하다, 간교하다

疢 열병 진; 열병(熱病), 앓다, 맛있는 음식, 감질나게 하는 것

仁者無敵 :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302. 不患貧而患不安 :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一刻千金 : 매우 짧은 시간도 천금같이 귀중함《좋은 계절 등에 씀》.

303. 知者不言, 言者不知 :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一舉兩得 : 한 가지의 일을 하고 두 가지의 이득을 본다.

304. 不恥下問 :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一刀兩斷 : 한칼에 베어 둘로 나누듯이, 행동을 날카롭게 결정함.

305. 有志者事竟成 :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각하고 있는 선명한 목적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은 ‘뜻’을 가져야만 한다. 그 뜻이 없으면 시세에 따라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一網打盡 : 그물을 한 번 쳐서 모조리 잡음.

306. 履霜堅冰至 : 서리를 밟으면 곧 두꺼운 얼음이 언다.

履 신 리{이};신, 신다, 밟다

- 큰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前兆라 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소한 전조라 하더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즉시로 그 움직임을 察知하여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一面如舊 : 처음 만났는데도 옛 벗처럼 친밀해짐

“多辯인데도 발언 하나하나가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聖人이다. 과묵한데도, 발언을 하면 모두가 법에 합치된다. 이는 君子이다. 이에 비하여 다변이든 과묵이든 하는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은 小人이다.”

307. 匪言勿言, 匪由勿語 :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말은 하지 마라.

- 술좌석이든 어느 곳에서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이다.

酒後吐眞言 : 술에 취하면 본심이 드러난다.

日暮途遠 : 날은 저물고 길길은 멀다.

途 길 도; 길, 도로

308. 作德心逸日休, 作僞心勞日拙 : 덕을 행하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거짓을 행하면 늘 마음이 괴롭다.

逸 : 달아날 일; 달아나다, 없어지다, 잃다, 숨다

拙 : 졸할 졸; 졸하다, 서투르다, 운이 나쁘다,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 어떤 경우에는 거짓을 행해서(作僞) 잠깐의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손해다. 당당하게 正道를 걷는 것이 결국에는 得이 되고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다.

一喜一悲 :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309. 道在邇 而求諸遠 : 도는 가까운 곳에 있건만 먼 데서 찾는다.

邇 : 가까울 이가깝다, 거리.관계가 가깝다, 가까이하다, 통속적이다

一事無成 : 단 한 가지의 일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음.

310. 小人之過也 必文 : 소인은 과실을 저지르면 어름어름 숨겨 넘기려고 한다.

一樹百穫 : 나무 한 그루를 기르면 백 가지 이익을 본다는 뜻으로, 유능한 인재를 하나 길러 많은 효과를 얻음을 이르는 말.

311. 枉己者未有能直人也 : 자신의 원칙을 굽힌 자는 리더가 되어도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

枉 굽을 왕;굽다, 굽히다, 사곡(邪曲)한 사람

一言以蔽之 : 한 마디로 그 전체의 뜻을 다 말함.

蔽 덮을 폐;덮다, 싸다, 숨기다, 막다, 포괄하다, 속이다, 가림, 가려 막는 것, 바자, 방비, 어둡다

312. 己身正, 不令而行 :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따른다.

一葉落知天下秋 : 나뭇잎 하나가 지는 것을 보고 천하가 기울어짐을 안다.

313. 有術則制人, 無術則制於人 : 도가 있으면 부하를 제어할수 있고 도가 없으면 부하를 제어하지 못한다.

一日如三秋 :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림을 이르는 말.

314. 功遂身退 天之道也 : 공을 세운 후에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一字千金 : 한 글자의 값어치가 천금에 해당함.

315.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 부정한 부와 지위는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은 것

一將功成萬骨枯 : 만 명의 병졸이 죽어야 한 사람의 장군이 공을 이룬다.

316. 樹德務滋, 除惡務本 : 덕은 작은 일을 쌓아가고, 악은 근본을 제거한다.

一進一退 : 한 번씩 앞으로 나아갔다 물러섰다 함.

알아도 신뢰받는 것은 덕행의 소치이다.

日就月將 : 학문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함.

318. 修己而不責人 則免於難 :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책망하지 않으면 이로써 난을 면할 수 있다.

一炊之夢 : 부귀와 공명이 꿈처럼 덧없음.

炊 불 땀 취; 불 때다, 밥을 짓다, 불다(吹)

319.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齊顏色 順辭令 : 예의의 시작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안색을 부드럽게, 말을 순하게 하는 데 있다.

齊 : 가지런할 제; 가지런하다, 같다, 같게 하다, 갖추다, 다, 똑같이, 모두

煮豆燃箕 :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뜻

煮 : 삶을 자; 삶다, 익히다, 삶아지다, 익다, 소금을 굽다, 찌뭇물을 달여 소금을 만들다

燃 : 사를 연; 사르다, 타다

箕 : 키 기; 키, 곡식을 까부는 데 쓰는 기구, 이십팔수의 하나, 쓰레받기

320. 處富貴之地 要知貧賤的痛癢 : 부귀한 위치에 있을 때 빈천의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癢 가려울 양; 가렵다, 근지럽다, 근질거리다, 넓다

自疑不信人 :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아니한다.

321. 智者樂水, 仁者樂山 :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自暴自棄 : 자신을 학대하여 돌보지 않음.

322. 感慨殺身者易, 從容就義者難 : 감정에 사로잡혀 죽기는 쉬우나 이성으로 의를 이루기는 어렵다.

慨 ; 분개할 개; 분개하다, 개탄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피로한 모양

長蛇陣 : ①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 ~을 이루다.

② 예전에 병법에서,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軍陣)의 하나.
陣 줄 진; 줄, 열, 방비, 포병(布兵), 진영, 둔영(屯營)

323. 呼我馬也 而謂之馬 : 나를 말이라고 부르면 나는 말임을 인정하겠다.

張三李四 : 장씨네 세 아들과 이씨네 네 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가리킴.

324. 言而當知也, 默而當知也 : 말함으로써 핵심을 찌르는 것은 지요 침묵으로써 핵심을 찌르는 것도 지다.

積土成山 : 적은 흙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325. 事以密成, 語以泄敗 : 일은 은밀히 추진해야 이루어지고 말은 누설 되면 실패한다.

泄 셀 설; 새다, 틈이나 구멍으로 흘러나오다, 싸다, 누다, 설사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함.

兢 삼갈 긍; 삼가다, 두려워하다, 굳다, 굳세다

326. 舟覆乃見善游, 馬奔乃見良御 : 배가 뒤집혔을 때 수영 솜씨를 알 수 있고 말을 달릴 때 말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다.

游 : 헤엄칠 유; 헤엄치다, 헤엄, 뜨다, 놀다, 놀이, 흐름, 별장, 이궁
奔 달릴 분; 달리다, 달아나다, 패주하다, 예를 갖추지 않고 결혼하다
御 어거할 어; 어거하다, 짐승을 길들이다, 다스리다

-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 그 위기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문제이고, 그런 위기를 무사히 잘 넘겼을 때에야 비로소 유능한 경영자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輾轉反側 :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잠을 이루지 못함.

輾 구를 전; 구르다, 반전하다, 타작하다, 연자매

轉 구를 전;구르다, 회전하다, 굴러 옮기다, 굴러 넘어지다, 옮다, 변하다, 움직이다, 변화하다, 관직이 바뀌다, 펄럭이다, 목소리
側 곁 측; 곁, 옆, 가

327. 不敢爲天下先 : 구태여 천하에서 앞장서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切齒扼腕 :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치를 떨며 몹시 분개하는 것.

扼 누를 액; 누르다, 멍에, 잡다, 움키다, 가지다

腕 : 팔 완;팔, 팔뚝, 손목, 수완, 솜씨

328. 賢士之處世也 譬若錐之處於囊中 : 어진 선비의 처세는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譬 비유할 비;비유하다, 깨우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井中之蛙 : 우물 안 개구리

329. 先發制人, 後發制於人 : 선수를 치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후수를 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

庭訓 : 가정의 교훈.

330. 興一利不若除一害 : 한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은 한 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助長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김.

-----• 사행심 ~

-----• 위화감이 ~되다

-----• 과소비를 ~하다.

331.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酒百藥之長 : 술은 모든 약 중에서 제일임. 술을 찬미하는 말

332. 舉人, 須舉好退者 : 사람을 천거하려면 물러설 줄 아는 자를 천거하라

晝想夜夢 : 낮에 생각했던 바가 밤에 꿈에 나타남.

333. 磨礪當如百煉之金, 急就者非邃養 : 자신을 단련할 때에는 금을 정련하듯 하라. 속성으로 해서느 뜻하는 바를 못 얻는다.

磨 갈 마; 갈다, 숫돌에 갈다, 문지르다

礪 거친 숫돌 려{여}; 거친 숫돌, 숫돌에 갈다

煉 : 불릴 련{연}; 불리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정련하다, 굽다, 고다, 반죽하여 굽다

邃 :邃 깊을 수; 깊다, 깊숙하다, 학문의 깊이가 심오하다, 멀다, 시간이 오래다

株守 : 그루터기를 지켜본다. 변하여, 구습에만 젖어 시대의 변천을 모른다. 변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지키기만 함.

株 그루 주; 그루, 나무, 곡식 따위의 줄기의 밑동, 그루터기, 뿌리

334. 家有賢妻, 丈夫不遭橫死 : 집안에 현처가 있으면 그 남편은 횡사를 안 당한다.

遭 : 만날 조;만나다, 상봉하다, 일을 당하다, =을 당하다,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 돌다, 한 바퀴 빙 돌다

酒池肉林 :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러운 술잔치의 비유.

335. 用法務在寬簡 : 법을 적용할 때에는 관용과 간결을 근본으로 하라.

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

336. 鷄肋 :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

知音 : ① 음악의 곡조를 잘 앎.

② 새·짐승의 소리를 구별해 알아들음.

③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

“볼 때는 明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聽을 생각하며, 色은 溫을 생각하고 貌는 恭을 생각하며, 言은 忠을 생각하고, 事는 敬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問을 생각하고 분할 때는 難을 생각하며, 得을 보고는 義를 생각한다.”

337.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苟 진실로 구; 진실로, 한때, 임시, 적어도, 구차히도

街談巷語 : 세상의 풍설, 즉 세상에 떠도는 뜬소문을 말한다.

338. 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앎.

溫 따뜻할 온;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수하다, 원만하다

可與樂成 : 일의 성공을 함께 즐길 수 있음.

339. 驥一日而千里, 駑馬十駕, 則亦及之矣 : 기는 하루에 천리를 가지만 노마도 열흘이면 이를 따라잡는다.

刻舟求劍 :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뱃전에 빠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었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

340. 吞舟之魚 不游支流 : 배를 한 입에 삼킬 만큼 큰 물고기는 강의 지류에서 헤엄치지 않는다.

吞 삼킬 탄;삼키다, 싸다, 싸서 감추다, 경시하다, 안중에 두지 아니하다

肝膽相照 :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귄다.

肝 간 간; 간, 간장, 정성, 충정

膽 쓸개 담; 쓸개, 담력, 마음, 충심(衷心)

照 비출 조; 비추다, 비치다, 햇빛

341. 天下不如意, 桓十居七八 : 천하의 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항상 7~8할은 있다.

桓 뜻말 환; 뜻말, 옛날 역참(驛站)의 표지로 세워 놓았던 나무, 굳세다, 위엄이 있다, 크다, 크게

姦聲亂色 : 간사한 소리는 귀를 어지럽게 하고, 좋지 못한 색깔은 눈을 어지럽게 한다.

342. 行百里者半九十 :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친다.
-질병 치료나 정치분야뿐만이 아니다. 최종 단계에서 긴장을 풀었다가 일을 그르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일을 마무리 짓는 때야말로 긴장의 끈을 더욱더 당겨야 할 때이다.

渴而穿井 :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준비 없이 있다가 일이 발생한 후에야 서두른다.

343. 無恒産者,因無恒心 : 향산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향심을 잃게 된다.

蓋棺事方定 : 관 뚜껑을 덮을 때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

344. 靡不有初, 鮮克有終 : 처음에는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예는 드물다.

靡 쓰러질 미; 쓰러지다, 쏠리다, 복종하다, 연루(連累)되다

鮮 고을 선; 곱다, 뚜렷하다, 깨끗하다

開門揖盜 : 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맞아들임. 즉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다는 뜻.

揖 읍 읍; 읍, 상대방에게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의 한 가지, 읍하다, 사양하다, 사퇴하다

읍 (揖)

345. 敺器而滿覆 : 기기는 가득차면 반드시 쓰러지는 법이다.

敺 기울 기;기울다, 기울어지다, 높이 솟다

- 가득 찬 상태에 있게 되면 向上心이 결여되어, 진보를 바라기가 힘들어진다.

乾坤一擲 :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나 성패를 겨룸.

-----• ~의 혈투를 벌이다.

346. 貴其所長, 忘其所短 :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 주고, 그 단점은 눈감아 주어라.

格物致知 :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대학의 용어》.

格 바로잡을 격; 木-총10획; [gé,gè]

바로잡다, 바루다, 겨루다, 대적하다, 치다, 때리다

致 보낼 치; 보내다, 전송해 보내다, 돌려 바치다, 바치다, 내던지다, 맡기다, 전하다, 끌어들이다, 부르다, 끝까지 다하다, 궁구하다, 힘쓰다, 정성스레 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347. 好死不如惡活 : 호사스런 죽음보다 고생스런 삶이 낫다.

犬馬之養 : 부모를 봉양만 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음. 즉 봉양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뜻.

348. 積善之家 必有餘慶 :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見兎放狗 : 토끼를 발견한 후에 사냥개를 풀어 놓아도 늦지 않다. 즉, 일이 일어난 후에 대처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

349. 愚公移山 : 우공이란 노인, 산을 옮겨놓다.

傾國之色 :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어지러워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

350. 功崇惟志, 業廣惟勤 : 훌륭한 일을 이루려면 목표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輕諾寡信 : 무슨 일이나 승낙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성이 적어서 약속을 잘 어긴다.

351. 懷與安實敗名 : 안일한 생활을 즐기다가는 이름을 드날릴 수 없다.

敬遠 ① 공경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음.

-----• 사장을 ~하다.

②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꺼리어 멀리함. 경이원지.

352. 上善若水 :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傾危之士 : 궤변을 늘어놓아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인물.

353.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 : 온종일 먹고 마시기만 하며 마음 쓰는 곳이 없다면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

驚天動地 :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 ~의 대사건.

驚 놀랄 경; 놀라다, 겁내다, 두려워하다, 동요하다, 어지러워지다, 떠들다, 일어서다, 놀래다, 놀라게 하다, 빠르다, 신속하다

354. 膽欲大而心欲小 : 대담하게 되기를 욕심내고 소심하게 되기도 욕심내라

鏡花水月 :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눈에는 보이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정취를 비유한 말.

355. 君子之交淡若水 :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담하다.

淡 : 물을 담; 물다, 싱겁다, 담박하다

- 군자의 교제는 맑은 물과 같이 담담하고 (君子之交淡若水)

소인의 교제는 단 술과 같이 달콤하다. (小人之交甘若酒)

鷄鳴狗盜 : 비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명상군이 닭 우는 흉내를 내는 자의 힘으로 함곡관을 빠져 나오고, 개의 흉내를 내는 자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한 故事, 변하여, 천한 재주도 쓰일 때가 있다는 뜻.

356. 智者之虛 必雜於利害 : 지혜로운 자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이해

를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雜 섞일 잡; 섞이다, 뒤섞이다, 장황하고 번거롭다, 흠어지다, 얼룩, 섞다, 만나다, 만나게 하다

- 이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손실의 면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전된다. 이와 반대로 손실을 입었을 때는 그것에 이해 얻어진 이익의 면도 고려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불안에 떨 걱정도 없을 것이다.

鼓腹擊壤 : 백성들이 천하의 태평을 즐긴다는 말.

鼓 북 고;북, 치다, 두드리다, 맥박

腹 배 복; 배, 창자, 마음, 아이 배다, 앞쪽, 중앙부, 가운데, 두텁다, 안다

擊 부딪칠 격; 부딪치다, 배나 수레가 질서 있게 나아가다, 거리끼다, 방해가 되다

壤 흙 양; 흙, 부드러운 흙, 땅, 토지, 경작지, 티끌

357. 卑讓德之基也 :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덕의 기본이다.

孤城落日 : 고립된 성과 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매우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

358. 士不可以不弘毅 : 리더는 넓은 식견과 강한 의지력을 지녀야 한다.

弘 넓을 흥; 넓다, 넓히다, 널리

毅 굳셀 의;굳세다, 의지가 강하다, 과감하다, 함부로 화를 내다

高枕安眠 : 베개를 높이 해서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안히 잘 지냄을 이르는 말. 고침(高枕).

枕 베개 침; 木-총8획; [zhěn]

베개, 잠잘 때 베는 베개, 긴 물건 밑에 베개처럼 가로 괴는 물건, 베다, 베개 삼아 베다, 잠자다, 잠

359. 寬而見畏, 嚴而見愛 : 너그럽되 두려워하게 하고 엄하되 사랑하게 하라.

曲學阿世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

阿 언덕 아; 아첨할 아 , 언덕, 구석, 산비탈

360. 綸言如汗 : 지도자가 한 말은 몸 밖에 나온 땀과 같다.

綸 낚싯줄 룬{윤}; 다스릴 윤, 낚싯줄, 현악기의 줄, 실, 굵은 실

滑稽 :

滑 어지러울 골(미끄러울 활); 어지럽다, 미끄럽다, 반드럽다, 부드럽게 하다, 교활하다, 흐리다, 흐르다, 다스리다

稽 머무를 게; 머무르다, 머무르게 하다, 쌓다, 저축하다

361. 不入虎穴, 不得虎子 :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功德兼隆 : 공과 덕이 융성하고 아주 많음

隆 클 룡{용}; 크다, 풍성하고 크다, 두텁다, 극진하다, 높다, 높이다

362. 寧爲鷄口, 無爲牛後 : 소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의 주둥이가 되어라.

寧 편안할 녕{영}; 편안하다, 문안(問安)하다, 거상(居喪), 거상하다

過目不忘 :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음.

363. 良賈深藏若虛 : 좋은 상품은 진열장에 내놓지 않고 깊숙이 감춰 두는 법이다.

賈 값 가{얹은장사 고}; 값, 얹은장사, 장사, 상업, 장수, 상인, 특히 좌상(坐商), 장사하다

- 빼어난 능력이 있다 하여 그 능력을 내세우며 과시한다면,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력을 깊숙이 감추어 둬으로써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깊은 맛이 우러나는 법이다.

過則勿憚改 : 과실이 있을 때는 가릴 것 없이 고쳐야 한다.

憚 꺼릴 탄; 꺼리다, 삼가다, 화내다, 성내다, 험박하다, 떨게 하다

364. 巧詐不如拙誠 : 교묘하게 표면만 꾸미는 것은 , 보잘 것은 없으나
정성들이는 것만 못하다.

寬仁大度 :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도량이 큼.

度 법도 도; 법도, 제도, 기량, 국량

